



후원회 소식

통권 206호

발행일 2008. 12. 20 | 발행인 권오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막가는 국회, 한나라당의 독주’



▲ 한미 FTA 비준 단독상정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사진-민중의소리

· 목 차 ·

시 · 산오름 정관호 • 2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3 / 출소장가수를 찾아서 임방규 선생님 임미영 • 7 / 기고 · 안동 교도소 면회기 변외성 • 15 / 감옥에서 온 편지 김동완 외 • 19 / 신행기 · 공주 없는 공주봉에 올라 송지영 • 24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6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8 / 슬픈일이 있었어요 • 38 / 재정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시분들 • 40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o.or.kr 이-메일 : yangsimso@hanmail.net

산오름

정관호 | 출소장기수

산에 오르면 그렇게
 었혔던 가닥들이 울울이 잘 풀린다
 살쭈뚱한 참빛으로
 삼단 술 짙은 머리칼이 빗겨지듯이

산에 안기면 늘상
 편안하고 푸근하고 너그러워져서
 날선 미움의 서슬도 무디어지고
 곱씹으며 뒹눴던 불면도 잠시 가라앉는다

그러다가도 바위오름의 천둥이나
 번개 부서지는 흠비라도 맞으면
 영영 늑대울음을 토하며
 저 구름 아래에 대고 잇발을 드러내게 된다

산은 풀어주고
 산은 부추긴다
 네 살아갈 자리에 똑바로 서라
 네 죽을 구렁에 올바르게 누으라 고

그리하여 산을 내려올 때면
 온몸이 진땀으로 흠뻑 젖고
 뒤돌아보는 산정에는 저녁 햇살부드러워
 비껴가는 띠구름이 내일을 또 부른다

세계인권선언 60년,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시계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회장

세계인권선언 발표 60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인권 행패를 고발·규탄하는 사회 각계의 성난 외침들이 줄잇고 있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가졌고 민변은 따로 8일~12일까지 지하철 시청역에서 ‘2008 인권사진전사회’를 열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를 위한비상국민행동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계인권선언 60년 -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을 선포하고 청와대로 행진에 나섰으며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14개 연대체인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도 청계광장에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란 주제로 ‘2008 인권선언 발표기자회견’과 ‘텔레이 인권선언 부스전시와 시민한마당’ ‘촛불문화제’ 행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또한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계인권선언 60년,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철폐 촉구 법률, 학술단체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사회각계에서 이명박정부의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인권침해실태보고와 전시회, 반민주적 ‘MB악법’ 리스트를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이 겪고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권선언을 하며, 노동단체들이 반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밝힌 ‘인류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사회 곳곳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이날 한겨울 추위가 몰아닥친 이른 새벽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개발지역’에서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이 포크레인을 동원 재개발지역의 건물들을 마구 헐어버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 날씨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이 맨몸으로 막아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던 경찰병력 100여명이 주민들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19명을 강제연행했다. 연행자 가운데는 70이 넘는 할머니도 있었다. 이미 서울 시내 뉴타운 재개발지역 20여곳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이같은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들은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이른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당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험학습권을 인정,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을 중징계했다. 바로 3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는 등 1980년대의 대규모 해직사태 이후 가장 가혹한 교권유린을 자행했다. 이제까지 교육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부단히 강조해온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에서는 교권의 핵심인 교사의 자율성과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짓이기고 있었다. 교사에게 있어 학생들과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부당하게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중 머물렀던 모 아파트 소유자에게 이른바 ‘범인은닉죄’를 적

용 소환조사하는 등 보복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이미 경찰국가화되고 있으며, 뉴라이트 등 극우 보수집단의 이념논리를 배경으로 가진 자만을 위한 이명박정부에서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상화된 인권유린 행패의 일부일 뿐이다. 특별히 중요하거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며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있는 순간에 벌어진 사건들이었다.

인권침해라 할 때 부당한 인신구속을 맨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공동선과 사회정의의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이다. 12월 9일 현재 자주통일운동과 국민건강권, 민중생존권, 주거권을 위해 헌신해오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는 74명이고(민가협 조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다 구속된 양심수 399명이었다(10월 31일 현재).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어 1월 2일 류선민 14기 한총련의장 구속, 1월 29일 전 관촌등학교 김형근 교사 구속, 2월 4일 민주노동당 전주시의회 오현숙, 서윤근 의원을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 참여 이유로 체포, 2월 19일 송현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구속, 2월 24일 전교조 경남지부 전통일위원장 최보경 교사 가택과 학교 압수 수색(8월 20일 불구속 기소), 2월 27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의장 구속, 7월 15일 기무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6군단 소속 전○○ 하사 군검찰에 송치, 8월 26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교수 등 7명 체포(구속영장 기각), 8월 27일 이른바 탈북간첩사건으로 원정화씨 구속, 9월 27일 실천연대 최한옥 집행위원장 등 간부 6명 체포와 압수 수색, 10월 15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20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정진후 부위원장 등 8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1월 14일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김승교변호사 등

이 단체 지도부 8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11월 14일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운영위원 등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 재발부(모두 기각됨)하는 등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국가보안법 적용 강화와 함께 집시법에 칼날을 세워 지난 한 해 동안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많은 양심수를 감옥에 보내고 있었다. 특히 촛불집회탄압에서 두드러졌었다. 한미동맹 강화와 조공외교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10만, 50만, 100만 시민이 촛불을 밝히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명박산성으로, 재협상이 아닌 국민탄압으로 일관했다. 1,500여명이 폭력으로 강제연행되었고 수백 명이 크게 다쳤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한상렬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많은 지도부 일꾼들이,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과 많은 노동자들이, 광우병 대책회의 안진걸, 박석원, 한용진 공동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집행간부들을 비롯한 79명이 구속되었다. 남은 연행자들도 불구속입건 또는 약식 명령으로 100~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했다. 경찰은 끝내는 집회 불허, 원천봉쇄는 물론 구속 항의 기자회견마저 막아나서곤 했다. 그 뿐인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집회와 시위 통제를 위한 집시법 개악안과 불법집단행위 집단 소송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친재벌(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서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부당해고에 장기투쟁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조건 차별시정제도로 도입된 비정규직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월간 노동리뷰 12월호 ‘비정규직 근로조건 변화’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29만 6천원

으로 지난 해에 비해 1.6% 증가에 그친 반면, 정규직은 212만 3천원으로 5.9% 증가했다. 급여는 정규직의 60.9%로 지난해 65.5%보다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도 정규직의 40%에 머물고 있으며, 노조가입율은 정규직이 17% 비정규직이 4.4%에 그쳤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가증스런 일은 부당해고와 이에 맞선 농성투쟁과정의 강제연행, 구속과 고소 고발 그리고 손배가압류 사태이다. 그리하여 기룡전자분회,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KTX비정규직 승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억압, 착취, 해고에 노동권도 노동자임도 거부당하며 이 시간에도 노숙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관련기구에서는 팔짱을 끼고 있고, 공안당국은 사용자편에서 농성자를 강제연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재벌과 기업편에서 비정규직 기간을 3~4년 연장 또는 아예 기간 폐지하고, 파견근무제를 허용 확대하거나 전면확대하는 것으로 간접고용에서 법적규제불가능을, 차별시정 제도에서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법적 개선이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동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10%)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외국인 노동자 숙박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등 벼룩의 간을 빼먹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꾸준히 신장되어왔던 공영방송 등 언론역할에 비수를 빼들었다. YTN 사장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앉히고, 'PD수첩'을 몰아붙여 MBC 사장을 기죽여 놓았으며,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어 이미 KBS는 공영방송역할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또한 새로 임명될 YTN사장은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30여 명의 주요간부를 부당해고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신문, 방송 검열이 허용되는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후원회 소식 203호)

이러한 반민주 악법 개정안은 위에서 말한 집시법, 비정규직법, 신문방송법 말고도 인터넷검열을 위한 통신방법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가 하면, 국정원 권한 강화 5대 입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법위기관리법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후원회 소식 205호). 이같은 이른바 MB 악법들은 인권침해는 물론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독재와 공안 통치의 법적 보장장치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채 비핵·개방 3000구상 등 반북대결정책으로 남북사이 화해협력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현정권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체제 붕괴를 노린 북한인권법 제정을 본받아 이른바 북한인권법안들을 국회에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방침을 세우고 있다. 평화없는 인권은 있을 수 없고, 전쟁과 살육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인권과괴행위이다. 지금과 같은 반북대결주의로 나갈 때 평화는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에 배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된, '북한인권법안'과 7월 21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그리고 같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북한인권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이북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로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북한인권법 3조)'..이란 표현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나타내고 있다.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한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내정간섭을 본만 형태이다(6조). 또한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13조)며 재정적 받침으로 KBS 라디오의 사회교육방송,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비로 1억원, 민간대북방송지원 3억원,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3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달 실패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들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국회 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국내 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등도 규정하고 있어 기획탈북 개입이란 논란의 소지를 갖게 했다. 그리하여 연 275억원이란 비용추계서도 내놓았다. 이는 지난 11월 21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대북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된 것의 연장으로 나라안팎을 통해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탄내어, 온 민족에게 참화를 불러올 반민족, 반역사 행패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20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질서의 뿌리를 흔들고 수많은 열사들과 양심수들의 희생으로 가꾸어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제1조) 했고,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생명과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집회, 결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21조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조합결성권과 유급휴가,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문학,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권리 등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30조까지) 이 같은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 1966. 12. 16. 21차 총회에 채택)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규약)과 함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인권장전’으로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엔 회원국이나 인권규약에 가입한 나라에서는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한국도 유엔에 가입(1991. 9. 24)했으며, 국제인권규약(A, B 규약)에 가입서명(1990. 6. 13)했다. 마땅히 선언과 규약이 규정한 내용을 지켜야 하고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적인 법과 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감옥엔 장민호씨 등 이른바 ‘일심회’ 관련자, 윤지진 범청학련의장, 강진구 실천연대 전집행위원장과 관련자등 자주통일을 하다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15명과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의장을 비롯한 진보연대 간부들과 이석행 민주노동위원장, 대책회의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한 촛불집회 관련 구속된 양심수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등 생존권을 위해 활동해온 노동자들, 주거권을 지키려다 구속된 양심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요구해온 양심수들이 480여명이 갇혀있다.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것은 반문명 야만행위이다. 만에 하나 어떤 혐의가 있다해도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집시법, 국정원강화 관련법, 언론장악관련법,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안등 개악시도를 중단하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입장을 밝히고 북인권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통일광장의 한 가운데에서

- 통일광장 임방규 선생님을 뵈다 -

임미영 | 후원회 사무국

내일 김장한디야.
뭘 배추 씻어 달라

....푸근함과 동시에 애잔함이 묻어나는, 노년에 드신 선생님의 사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는 말씀이시다. 겨울 추위가 코앞에 닥쳐와 선생님댁도 겨울 먹거리를 위해 오손도손 김장을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일 사무실에 있을 테야. 그러로 와야....만나 뵈고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통일광장 사무실로 초대를 해주셨다.

인사동 입구에 자리한 사무실은, 낡았지만 원룸형태의 작고 아담한 방이다.

낮은 탁자에 화분이 나란히 놓여있고 책상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통일광장을 드나드시는 선생님들의 단정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방 중앙에 놓인 둥근 전기난로는 아직 그다지 차지 않은 겨울초입의 방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초기의 소식지(6호)에 선생님에 대한 단면들이 실려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항상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전히 많은 것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물론 후원회 소식지라는 지면의 한계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이명박정권을 맞아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얼핏 모든 것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과대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무엇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6호 소식지에 실린 사진에서는 선생님은 머리카락이 까맣게 길어 이마를 가리고 있고 콧날이 더 우뚝한

모습이셨다.

어디 변한 것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뿐이겠는지.

선생님이 몸담고 계시는 시간과 조건은 참 많이도 변해 있다. 당연히 0.75평의 감옥에서는 해방이 되겠지만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적인 이명박정권 아래에서는 선생님의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의 투쟁선상에서 계실 때처럼 결연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운동 공간에서 누구보다도 고르고 넓은 지면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의 생의 고백은 비록 이곳에 다 적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들뜬을 보듯 가슴 뭉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듣는다

선생님은 1932년 6월16일 전남 부안군 동진면 당하리에서 출생하셨다.

선생님도 여느 장기수선생님들처럼 일제강점기를 거쳐 좌우의 대립, 외세냐 자주냐의 갈림길이 되었던 해방공간과 또 6.25전쟁과 박정희 전두환을 대표하는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민족의 수난사를 온 몸으로 겪어오셨다.

선생님은 자작농을 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3남 2녀의 둘째로 형(후에 옥사하신)과 누이동생들 남동생을 하나 둔, 조부모의 사랑은 듬뿍 받으며 탄은 좀 윤백하다고 할 유년기를 보냈다.

특히 그리고 부안이라는 곳은 역사적 유래를 가진 곳으로 선사시대의 고인돌이 동리 곳곳에 있었으며 담복산이니 장군바위니 하여 역사의 향기가 짙은 고장이었다.

또한 마을에서 바다에 이르는 길이 3킬로에 불과해

결פת하면 바다에 가서 출렁거리는 파도와 마치 먼 미래로 향해 펼쳐진 듯한 수평선을 마주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부친(임병기님)은 그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었으며 꽤나 머리가 좋으셨다고 한다. 열아홉 때 면서기가 되면서 면인민위원장을 지내셨던 부친께서는 그 동리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부를 잘 하신 분이었는데 사범학교 입학시험 날 아파서 그만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셨다.

부친은 신인영선생님의 아버지와 동기동창으로, 함께 좌익활동을 하셨으며 신인영선생님은 형과 동기이고 또 그 동생은 선생님과 동기이니 신인영선생님 가족과 인연이 깊은 사이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선생님은 일찌감치 진보적이었던 집안의 내력과 그 당시 부안이라는 좌익(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곳에서 자연스럽게 좌익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또 지금 민중탕제원의 한재룡선생님과 같은 고향출신으로 중학교에서 같은 학급이셨다.

선생님은 부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창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고창중학교에 김엽수라는 지도교사가 있었다. 한번은 제자들은 불러 함께 놀러가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리저리한 이야기 중에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야들아 이차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수천만명이 안 죽었냐. 유태인만 6백만 구라파 쏜런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죽은 숫자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 재산상의 피해는 천문학적이고... 이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 인적 물적 손실을 준 전쟁을 독일과 이태리 일본이 도발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된 후에 이들 세 나라도 전승국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다르지 않느냐! 인류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은 민족이다. 또 전쟁이 끝난 후 반드시 해방되어야 할 민족이 아니냐. 그런데 왜 또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미국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말이다. 그럼 미국은 어떠한 나라냐. 지금

필리핀과 큐바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 반미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때보다 더 긴 세월을 미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시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식민지 시절 국어도 일본말을, 역사도 일본사를 배워왔던 선생님께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우리말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일본어와 일본사를 우리 것인 양 배우고 학교에서는 일본신사를 두어 아침에 등교하여 절하고 조회 때는 국민서약을 외워서 읊조리고 동쪽(일의 왕실이 있는) 동방예배를 하고 또 하교 길에도 신사에 절하는 등 철저하게 내선일체 교육을 주입받았던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일으킨 후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고 국민들을 그 도구로 동원했다. 그래서 매년 12월 8일에 학교에서 극기훈련,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변산 등 멀리서 장작을 날라야 하는 등 일제치하에서 조선 반도는 그야말로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창세기명은 물론이요 조선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흰옷을 금하게 하여 장날에 흰옷을 물들이게 하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먹총을 쏘아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데 총력을 집중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학교에서는 한글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월초에 카드 열장을 나눠주어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면 한 장씩을 빼앗아 월말에 가서 그 카드 숫자를 검열하여 남은 숫자에 따라 불량학생과 모범 학생으로 나눠 수신성적에 반영시켰다고 한다.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도 위패-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를 모셔놓고 밥 먹을 때 절을 해야 했고 4학년이 되면 운동장에서 4인1조씩 나눠서 새끼 꼬아서 가마니를 짜고 또 신발이 없어 조리를 만들어 신고 여름 겨울 방학동안 새끼꼬기 100벌씩을 해가야 하는 등 철저하게 일본의 전시동원체제 높음에 따르도록 했다.

겨울에는 일본 기마군단의 말에게 먹일 마초를 위해 건초더미 다발을 해가야 했고 석유공급로가 차단되자 피마자씨를 나눠주어 재배하여 그 씨앗을 거두어 들였으며 해바라기씨앗과 관솔 송진채취를 해야 했다.

여름에는 모내기 보리베기 김매기 피뽑기 추수에 동원되고 여성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청년들은 징용되어 전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것 뿐이겠는가. 학교운동장을 파내어 밭으로 만들고 학교에 속한 농지를 아이들로 하여 못자리를 만들게 하고 자갈밭으로 뚱뚱과 거름을 짚어지고 다니게 할 정도였다.

항상 공출량이 소출량보다 많아서 속속들이 다 갖다 바치고 먹을 게 없어 농민들은 그나마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땅에 파묻어놓으면 용케도 찾아내어 다 파내어 가고는 주인에게 매질을 하곤 했다. 양푼이나 부엌살림은 말할 것도 없고 농기구와 심지어 징 뺨과리까지 다 공출해가고 나중에는 아예 마을의 농악대를 없애버렸다.

마을에서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나무재-해초-를 뜯어 베낭이나 멜빵을 해서 등에 지거나 달구지에 끌고 갔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들의 굶주리거나 영양결핍으로 부항 든 얼굴들과 남루하기 그지없는 옷차림과 벗은 발로 비틀거리며 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은 속으로 울분을 삭혔다. 후에 생각해보니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항일이나 반제국주의적 민족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의 식민지배의 악랄함이 극에 다다라 집에서는 음식다운 음식은 먹기가 힘들어 졌다. 먹을 거라고는 없어 사람들은 밭에서 거름이나 되는 들풀인 자운영나물을 캐어다먹고 겨우 콩나물밥 나무재밥 콩깍묵-

만주에서 거름으로 들어온 것을 죽 쑤어먹고 배탈이나기 일쑤였다.-과 쌀겨와 보리겨 모시알으로 연명하고 그렇게 비루하게 찌든 조선의 학생들과 배불리 먹고 잘 입어 반들거리는 일인학생과는 그 외양에서 확연히 구별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들이 양복에다가 구두와 가죽가방 모자를 걸치고 나타나면 눈에 거슬려 시비를 걸어 막 쫓아기도 했다 하신다.

선생님의 마을에 만주에서 이사 온 김언배라는 동무가 있었다.

선생님은 이상하게 집이 부자인 동무집에는 가지 않고 자꾸 가난한 언배 집을 찾아 놀게 되었다.

그 동무 집은 만주에서 이주해오다 보니 농사지를 땅도 없었다. 그래서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만들어 먹고 살았다. 그런데 언배는 먼 이국에서 온 까닭인지 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만주에서의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맞서서 싸운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유독 독립군장군(김일성 장군)이 일본놈 상대해서 쓰러드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덕분에 선생님은 막연하게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심으로 마음 설레이곤 하였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겨우 학교에서 보여주는 반공영화 볼 수 있었는데 그 제목이 '김일성마적단'이었다.

말하자면 일본놈이 우리 독립군 장수를 마적단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 내용인즉

마적단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조선여성들이 탄환을 날리주는 문을 넘어 오다가 죽고 중국집으로 들어가 칼로 위협하다가 쫓겨서 도망간다는 내용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김일성주석의 신출귀몰한 행적을 왜곡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2차대전 종전과 함께 해방이 되었다.

8월 16일 여름방학이었는데 학교에 오라고 해서 학교에 갔더니 야마모토라고 하는 일본인교장이 국기 게양대의 일장기를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이 졌다. 우리는 내지(일본섬)로 가고 너희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라며 학교를 떠났다.

겨우 14살이었던 선생님은 그저,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다스렸으며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긴다고 했는데 왜 졌는가하는 의구심만 들었다.

어른들이 “평난(平難)이 되었다.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야 선생님은 비로소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으며 해방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마을에는 74가호가 있었는데 라디오가 한 대도 없었다. 소식을 알 길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3킬로 밖에 있는 부안읍에 보내어 라디오가 있는 곳에 가서 소식을 듣고 오게 했다.

초조하게 젊은이를 기다리는 동리 어른들이 호롱불 아래 날짜 지난 신문의 사설을 읽고 해설해주곤 하며 소식을 기다리곤 했다.

해방이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사람끼리 마을 회의를 했다.

우선 인민위원장을 선출하고 면대표를 선출하고 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철저하게 아래에서 위로 선출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쯤 전국 어디에서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선생님은 고창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민주학생동맹에 가입했다. 민주학생동맹의 1차조직이 파괴된 후 2차로 조직되었을 때 선생님도 가입하게 되었다. 같은 학급이었던 한재룡선생님도 당연히 가입하였다. 김희봉이라는 학생이 학년위원장이었다. 선생님은 조

직부분을 맡았다. 1차조직 파괴 후 2차조직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8,9명이 한조가 되었다.

한 학급 60여명이었는데 후에 모두 입산하였다. 그 중에 일곱 명이 사망하고 그 중 네 명이 현재의 비전향장기수이다.

지하조직에서는 학습을 철저히 하여 이때 거친 학습은 선생님이 신념을 지켜내는데 큰 원천이 되었다. 선생님은 생애 중 그때 가장 많은 양과 높은 차원의 학습을 하였다. 한 달에 두 번의 학습시간이 있었는데 상급반의 지도위원이 학습을 지도하였다. 한창 학구열이 높을 때라 한 달에 한두 번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세포에서 논의를 하여 더 많이 독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진보서적 한 권씩 가져와서 서로 일정한 시간동안 돌려가면서 읽기로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한 달에 아홉여 권의 책을 꼬박꼬박 읽게 되었다.

‘소비에트당사’ ‘정치경제학’ ‘변증법적유물론’ ‘사회발전사’ 등 많은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했다. 그런데 국사 생리 물리학은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낙제를 면할 수 있는데 영어는 암기해야 하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영어를 제대로 하려다가는 다른 사회과학서적을 못 볼 지경이었다. 선생님은 ‘이놈의 영어 공부해서 통역관이 될거야’며 영어공부는 집어치우게 되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유난히 책 욕심이 많았다. ‘자본론3권’ ‘조선경제사’ 그리고 팜플렛으로 만들어진 글 등... 밤샘독서를 일삼았지만 너무 어린 탓인지 뜻을 다 알기는 쉽지가 않았다.

1947년 남로당이 불법화 되면서 지하로 들어가고 민청 여맹 전평 청년학생동맹 등 진보적인 단체가 모두 지하로 들어갔다.

1948년 3월쯤 진영초라는 학생을 선생님이 가입시켰는데 3개월을 개별교양을 담당했다.

어느 날 서북청년들이 하숙집에 와서 상급반학생들을 체포해갈 때 몸집이 좀 컸던 진영초학생도 상급반

으로 취급되어 붙들려 가고 말았다. 서북청년들은 진영초에게 가입시킨 사람을 불라고 마구 때렸는데 진영초는 결국 모진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임방규라는 이름을 발설하였다. 하루는 하숙집에 있는데 서북청년단체 학련(학생연맹)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다짜고짜로 데려갔다. 그들은 조직을 주도한 선생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보내주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나온다고 협박을 했다. 선생님은 갖은 협박에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자들은 ‘제끼만 자식이 대단하네!’라며 바로 경찰서 앞에 있는 서북단청년들이 함께 쓰고 있는 학련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놈들은 선생님을 보더니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손에 붕대를 감은 놈이 선생님을 잡아채서 죽어라고 패기 시작했다. 뭐라고 묻지도 않았다.

실컷 두들겨 뺨 후 웬만큼 기운이 다했는지 다음에는 유도하는 놈이 덤뻤다.

적들에게 잡혔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흠신 두들겨 맞아 늘어질대로 늘어진 몸을 두 놈씩 위 아래로 바쳐들어 머리 위로 치켜올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놓아버렸다. 두 번을 그렇게 하니 어린 선생님은 개구리 뺨듯이 완전히 뺨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문에 들어갔다. 의자에 묶어서 앉혀놓은 채 얼굴에 명주수건을 덮어씌워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숨을 들이쉬면 숨이 확 막혔다. 생짜배기 물고문이었다. 선생님은 이제 거의 죽은 몸이 되어 이미 김희봉이가 멀리 도망간 것을 알고는 김희봉의 이름을 말했다.

김희봉은 그때 이미 노출되어 지하로 숨어들어가고 학교도 나올 수 없었다.

김철하라는 학련위원장이 고창천 상류에서 해질 무렵 우연히 김희봉을 만났는데 김철하가 칼을 빼들고 쫓아갔지만 김희봉을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놈들은 마지막으로 몽둥이로 선생님의 머리를 때린다 기둥에다 묶어놓고 몽둥이로 뼈마디가 아프도록 밀어댔다. 온 몸은 녹초가 된데다가 목이 부어 침조차

삼켜지지 않았다. 밤새 그렇게 때리고는 서북청년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상조사를 하는데 선생님은 거짓으로 재산이 족히 이백마지기가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창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의 아들인 줄 알았던지 내보내주었다.

선생님은 미리 고초를 겪고 풀려난 진영초에게 업혀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에서 별이 떠돌았다.

집에 돌아와 선생님은 학급책 김계수를 불러 “나는 고창에서 뿔테니까 만일 사건이 노출되거든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미루라”고 당부하고는 고창을 빠져나가 외갓댁으로 갔다. 외갓집에서 한약을 먹고 몸을 회복한 후 집에 가 있는데 이종사촌이 와서 학련에서 선생님을 체포하려 부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급히 부안 주산면 여술마을의 이모에게로 피신을 가서 3개월을 지냈다. 이모 댁에서 숨어 있는 동안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선생님은 동네를 지나 다니는 교복입은 학생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오셔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손주택(한독당의 반민특위 전라도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선생님의 학교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더니 전주의 공업학교의 김영진이라는 역사 선생과 사전조율을 하여 선생님은 1948년 여름이 지나서 전주공업학교에 편입하게 되었다.

1948년 좌익활동을 하던 아버지조차 체포되어 전북도경찰국에 수감되고 말았다. 하루는 학교로 북중학생이 찾아서 아버지가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고 알려주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선생님은 다시 손주택이라는 분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손주택이라는 분은 아버지를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있던 고등계형사와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경찰의 고문흔적을 지우는 치료를 받느라 석방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1949년에 아버지는 다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선생님은 4학년을 다니다가 상경해서 서울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살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 발발하고 서울이 해방되자 서울에서 전북유격대가 조직되었다. 1차는 80명이 조직되어 김태중의 인솔아래 출발하고 선생님은 2차조직에 동원되었다가 의용군 해안경비대에 입대해서 분대장급 이상은 인민군으로 속하여 부천에서 무장하고 남하했다.

대전을 경유하여 낙동강으로 다시 의령-진주-삼천포에서 고성군 광도면 황리에 해안경비를 하다가 후퇴 시 사천과 진주 사이 전선에서 방어전을 하다가 거기서 분산하였다.

선생님은 속한 부대는 함양에서 남원으로 대전을 거쳐 최후집결지는 춘천이었다.

함양에서 중앙선위원을 만나서 중국지원군 올 거고 각 도당이 총사령관 지시하에 당이 적 후방에 입산하여 유격투쟁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전북도당은 회문산으로, 전남경남도당은 지리산에 입산하여 유격부대를 조직하고 회문산 방향으로 가는 도중 임실 성수산에 입산하게 되었다.

입산하여 선생님은 영웅적인 투쟁을 펼치다가 1951년 4월24일 부상을 당했다가 1952년 1월24일 임실군 새심리 삼계면에서 체포되었다.

처음 체포 때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에 회부하여 국방경비법 32조로 1952년 9월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취조를 받은 다음 날 오전에 광주 무덕정에서 호명하는 순서로 긴 나무 의자에 앉혀놓고 한 사람씩 사실관계 확인없이 첫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만 호명하고 그 이하 28명 사형이라고 구형하고 그날 오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폭압적인 재판을 받았다.

광주형무소만 해도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만 200여명이나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그해 10월부터 3.40명씩 집단적으로 학살했으며 마지막에는 6명이 살아남아 무기로 확정되었다. 그 중 6명이 살아남았는데 선생님과 장운규 김창묵 세 분은 살아있고 3명은 지금까지 소식을 알 수가 없다.

1954년 3월에 선생님과 다섯 사람은 대전감옥으로 갔다. 1960년 4.19항쟁이후 장면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반사면에 해당되어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으며 68년 대전에서 전주로 이송되어 1972년 만기출소하였다. 출소하여 고향 부안에 있다가 3개월 후 상경하였다.

상경하여 생활근거가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 선생님은 이리저리 살 궁리를 하다가 화분에다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다가 박정평 선생님을 만났다. 박정평 선생님은 고향이 선생님과 같은 부안출신으로 건축업을 하고 계셨다. 지금에서 말하지만 그때 박정평 선생님은 고지식하지 않았으며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한다. 박정평 선생님은 선생님이 화분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보고 그와 관련하여 건축페인트를 해보라고 권하여 페인트가게를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매재인 송계채 선생님이 그 당시 유명한 학포 비닐제품공장에서 공장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쓰지 않게된 새 기계 3대를 주었다. 선생님은 자본가와 결합해서 독섬에다 공장을 얻었다.

그러나 시행착오 끝에 물건을 생산했지만 반품이 발생하고 하여 80만원이나 손실이 났다. 다시 공장을 축소해서 답십리에서 생산에 들어갔지만 과잉생산으로 판매처를 찾지 못해 큰 손실을 겪기도 했다.

하루는 사원채용공고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열네살 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도저히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제발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잘 키워보겠다면 한 달 후 월급에다가 2,000원을 더 주고는 시장에 같이 가 꽃고무신을 구입해서 예쁘게 포장하여 엄마에게 갖다주라고 했는데 소년의 어머니가 매우 감격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소년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 공장아저씨 생각이라고 해 이튿날 소년의 어머니가 와서 매우 감사해하며 자랑을 하였다. 선생님은 생활이

풍족했던 소년의 어머니에게 소년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기에금을 해주기로 약속을 얻어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소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여름철이라 밀짚모자를 쓰고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와 선생님을 보고 갔다. 소년이 선생님을 지켜보다가 혼자이신 것을 알고는 중매를 했는데 맞선을 보기 전에 미리 공장에 와 일하는 선생님을 보고 갔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방에서 만났다. 선생님이 마흔 다섯이고 여자분은 서른여섯 살 때였다.

선생님은 겨우 박정평 선생님이 준 십만원으로 셋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말했다는 것이다 ... 난 빈털털이다. 그러나 나에게 역량이 있다. 어려운 때에 리어카를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생활을 해낼 수 있는가?하고서 말이다.....

일주일 후 여자에게서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는 답이 왔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 되었다라며 결혼을 포기하고 여전히 열심히 공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기계에 손을 다쳐서 공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누워 있는데 그 여자 생각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망설임이 없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만나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거리에 경찰을 보고 그 여자가 좋지 못하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는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선생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겨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그 여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길 하자고 했다. 그런데 여자가 한 사코 과거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알았지만 그 여자는 아마도 선생님께서 과거에 여자라도 사귀다가 헤어진 이야기인줄 알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이미 지난 과거는 중요치 않다고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드디어 1977년도 4월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채 만년도 되기도 전

10월 1일 사회안전법의 제정으로 재판도 없이 재범

할 우려가 있다는 검사의 근거없는 판단에 의해 감호 처분을 받고 또 감옥에 끌려갔다. 국가보안법으로 3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한해서 적용되는 현대의 악법이였다.

2년을 지나 나갈까 했는데 검사가 사상전향여부를 물어 전향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2년을 연장하고 그렇게 연장된 시간이 10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총련동포 서준식 선생님이 출소해서 감호소의 살인적인 탄압과 부당성을 만천하에 폭로하여 국내외 여론이 들끓자 사회안전법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입법하여 선생님은 14년이 지난 1989년 출소했다

집에서 기다리던 부인은 처음에는 2년에 그치는 줄 알고 집에 오리라 했는데 오랫동안 오지 않자 선생님이 떠나버린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인은 장충공원에서 아이들과 부인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선생님으로 착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선생님은 출소해서 친구부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집을 찾아가 감옥에서 누이동생에게 쓴 편지와 잡지(사회안전법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는). 갱신장 출소증명서 등을 가지고 부인을 만났다. 그때 이미 딸이 있었는데 아이에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했으며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선생님의 미래를 믿지 못해서 결코 같이 살수 없다고 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1년이 지나서 면회를 오지 않는 부인이 혹시 재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계셨다 한다. 부인은 같이 생활을 하려면 전향을 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족에게 너무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그것은 죽음과도 같다고 거절했다. 선생님은 이미 자라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딸에게 “난 통일운동하다가 징역갔다.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딸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선생님은 민중탕제원에서 일을 하며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 집에 돌아갈 때 달이라도 밝을라치면 이 아픈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선생님은 부인의 완강한 거절에 좌절하여 최후로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야 하니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으나 곧 조국의 분단

으로 인한 비극과 또 나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부인을 두고서 두 번 장가간다는 것은 너무 파렴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을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금쪽 같은 부인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부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는데 동지들이 제 일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의 잔치를 열어주었다.

그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딸이 이제 장성하여 서른 살이 넘는 나이가 되었다. 선생님은 내게 손전화에 담긴 따님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챙있는 모자의 그늘아래 선생님의 인상이 그대로 느껴지는 예쁜 얼굴이었다.

나는 선생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감옥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동지들에 대해 매우 헌신적이었다는 이야길 듣고 매우 감동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의 생애에 동지는 도 대체 어떤 존재인가고 여쭙었더니 선생님은 신뢰에 찬 표정으로 가득차서 “솔직히 동지라는 것은 혈육보다 더 돈독하제이..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함께 투쟁하고 신념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다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도 잊거나 거스른 적이 없으시다고도 하셨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재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통일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는 민족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반드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폭넓게 연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성실히 하여 조국과 민족에 기여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역사의 본질을 계승성과 창조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차단하거나 거역하여 역사의 진실을 되돌려놓고 뒤엎으려 하는 이명박정권의 반통일적행패는 머지않

아 그 역사적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통일의 길목에서 6.15 10.4선언 이행은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전의 일이지만 아파서 되려 너무나 생생한 기억을 되살리며 말씀해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생략하셨을 것이다.

지금 선생님은 별도로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조각조각 모아 한틀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썩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이런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안의 글은신동엽의 시 ‘썩데기는 가라’에서 따옴

안동교도소 면회기

변외성 | 회원 · 출소양심수

1. 안동으로가는 날

보고 싶은 동지들이 있어 생 때를 쓰다시피 해서 동지들을 보러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다름 아닌 안동교도소에 계시는 두 동지들을 면회하기로 한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는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좋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저가 사는 상도동 철거촌의 흥물스런 빈집들을 헤집고, 골목을 돌아 상도동 한중막 버스정류장에서 약속장소인 영등포 민주노총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오늘따라 날씨는 왜 이다지 춥고 매서운지 손이 시리고, 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난방이 시원찮아 부엌의 물통에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어 얼음을 깼 찬물에 감은 머리가 덜 말라서인지 추위는 배가되는데 오늘 따라 버스는 올 생각을 안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아니하는 좁은 문 통일운동, 민중운동의 길을 가는 외로운 동지를 면회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가줄 사람도, 같이 가고픈 사람도 없는 길을 외롭수의 외로운 사람들만이 가는 길에서 감옥이라는 곳을 선택한 동지들을 찾아뵙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성용형님과 저는 그렇게 안동으로 향합니다. 자동차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영동고속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부와 서해안 강원내륙에 많은 눈을 예고하고 있어서인지? 스키를 매달은 차량, 화물차들로 인해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타는 속을 저들은 알겠는가? 외로운 교도소의 고독한 밤을 저들은 알겠는가?

영어의 몸이 된지 2년하고 3년이 넘었는데 건강은 어떠한지, 단식을 하신다는데 그 깨끗한 성품에 몸과 마음은 상하지 아니하였는지 상념에 잠기다 가속발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참을 차로 달려 눈앞에 그려지는 풍광은 치열한 일상에서 잠시 멀어지게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저 멀리 펼쳐지는 산허리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겨울의 파란하늘과 앙상한 가지를 품고 말라버린 풀 숲 산야를 보면서 “산은 양심을 부른다, 산과의 약속은 불조심”이라는 산림청 광고판이 대조를 이룹니다. 멋진 소나무 뒤로 웅장한 봉우리들이 눈에 보이며, 맑은 하늘에 열은 숨 같은 구름들이 아기가 기 눈이라도 쏟아 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물은 그리 두껍게 얼어붙지는 않았네요. 저 낮은 강변의 물이 꿈꿈 얼어붙으면 좋은 놀이터가 되고는 했었습니다. 저가 어릴 적 나지막한 추억으로 잠시 여행도 가봅니다. 참!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리고 그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조수석에서 열심히 양심수후원위원회 송년회 광고를 손전화로 알리던 성용형님이 민생고도 해결하고 운전교대도 할 겸 휴게소로 들어가자 말하니다. 전날 일정에 쫓기다 저녁부터 밥 구경을 못한 나로선 형님이 갑자기 존경스러웠습니다. 산허리를 돌아올라 한참을 휘어 올

라가니 산 중턱에 단양휴게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식당에 들러 돌솥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커피 한잔과 끄적이도 몸을 아끼는 형님에게 율무차를 전달하고 중앙고속도로를 다시금 달립니다. 잠시 잘 단장된 단양휴게소를 생각하며 이명박 정권이 조심스레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정책을 생각합니다. 江山萬古主 人物百年貧이라~ 강산(자연)은 만고 전부터 주인이요~ 사람은 백 년 동안의 손님이라~ 겨우 백년정도밖에 못살 손님이면서 묵묵히 손님 대접하는 자연을 개발이라는 문명의 이기와 이윤창출을 위해 우리강산을 초토화 시키려는 개수작을 떠올립니다. 전 국토에 황무지가 하나도 없는, 사시사철 뚜렷한 우리나라만의 기후환경, 녹지를 만들지 않아도 푸른 풀이 저절로 돋는, 비옥한 토지가 만드는 싱그러운 우리강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을 가진 나라인데, 이런 환경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자본주의 맹아’들의 날림사업, 날림행정이 국토 곳곳의 비경과 절경을 두루 해치고 있으며 막대한 세금투여와 재정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안동도착과 굴욕적인 하루

소백산, 주왕산을 지나 3시간 30분을 달려 서안동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안동경찰서를 향합니다. 예초 면회계획에는 이진강 동지 어머님께서동행을 하기로 하셨으며 안동교도소 측은 장소이동접견을 허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연세와 지병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엄습한 혹한 추위로 인하여 식구들의 간곡한 우려를 받아들여 전날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안동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장소이동접견을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가족동행이 아니면 장소이동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뚜렷한 규정을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불허방침만 전달했습니다. 또한 함께 수용되어 있는 정창윤 동지는 어머님이 경운기사고로 2년 째 의식불명의 상태로 안동 모 병원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간혀있는 자식의 미어지는 가슴은 오죽하겠습니까? 간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불효인데 아들 된 신분으로 어찌 멀쩡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며,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된 도리로 손 한 번 잡아드리고, 부족한 아들 죄 많은 아들은 눈인사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귀휴신청을 했지만 교도소 측은 불허를 통보합니다. 현행 형행법에는 귀휴 해당사유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때나 위독할 때는 귀휴가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교도소 측은 수용생활이 양호하지 않다는 억지논리를 펴며 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창윤 동지는 그동안 안동교도소에서 생활해 오면서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5~6차례 단식투쟁을 벌였고 그 때문에 소속의 미움을 사 복역기간 중 3차례나 부당하게 징별방에 갇히고 최근까지 문제수(요주의 관찰대상)로 낙인 찍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는 전체 재소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을 뿐입니다. 안동경찰서에 도착하여 거짓친절을 포장한 정보계장의 안내로 4층 정보2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견권 보장! 교도관 인권의식 고양! 형행법59조에서 보장하는 귀휴를 안동교도소장은 허락하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안동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예초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교도소 측은

장소이동접견은 안되고 일반접견으로 시간을 더 주겠다는 말만 연발합니다. 공안교위, 교육교화계장의 권위적이고 획일화된 의례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총무과장 면담, 우여곡절 끝에 교도소장을 면담했습니다. 여우 눈을 부릅뜨고 교도소 입장만 늘어놓는 교도소장의 말과 교도소장실 벽면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동양화가 겹치면서 교도소장의 얼굴을 쳐다보니 ‘지킬과 하이드’가 생각납니다. 성용형님과 저가 장소이동접견 불허방침에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머리가 반쯤 벗겨진 보안계장은 연신 소장의 눈치를 보면서 알랑방귀를 끼고 소장을 대변해서 우리의 말을 가로막고 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처음 우리를 위압적으로 대하던 얼굴을 반죽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난한 논쟁 속에 생산적인 대화가 불가능 할 것 같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점전접수와 일과시간이 지났지만 일반접견을 시켜주겠다고며 발길을 잡는 공안교위와 보안계장을 뒤로 하고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어둑어둑한 땅 그림자가 내려 안고 찬바람이 콧등을 치면서 밀려오는 아쉬움과 뒤틀린 심사가 분함이 동반되어 애꾸진 성용형님에게 통명한 목소리로 돌아 갑니다. 세상만사 감싸는 사랑이 깊을 만큼 깊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더러운 세상에, 밤 그림자와 함께 타오르는 분노는 두 동지를 두고 돌아서는 미안함과 그리움에 지친 나의 애절한 가슴을 덮어버린 깡패정권과 그 하수인 교정관료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분노로서 시퍼렇게 날 세우며, 두 사람이 마시는데 혼자 외로이 마시는 술잔처럼 아픈은 한 잔 한 잔 늘어만 가는 시간 속에 사는 것이 변화무상하여 서글픔을 곱씹으며 안동의 하루는 그렇게 술잔으로 저물어갔습니다.

3. 서울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전날 마신 소주와 오랜 시간을 달려온 피곤함에 객고까지 겹쳐서인지 성용형님의 아름다운 전차소리에 잠을 설치서인지 아침 10시가 다되어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세면을 하고 어제 못한 면회를 하기위해 안동교도소를 향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교도소 정문 초소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텅 빈 주차장에 외래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접수실에서 이진강 동지 면회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이 면회를 한다던 정창윤 동지에게 어제 있었던 내용을 압축하고, 안부를 묻는 접견서신을 작성 할쯤 이진강 동지를 면회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기시는 동지를 보면서 언제나처럼 맑고 밝은 의연함에 반가움이 배가됩니다. 토요일이라 면회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교도관의 연출에 깜짝 놀라셨다는 말씀으로 대화를 열어 갑니다.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실천연대 관련한 광고를 보시고 상황을 늦게 알았다고 하십니다. 정창윤 동지 단식소식은 저희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며 같이 못하는 미안함과 교도소측에서 철저하게 분리수용, 관리통제를 하는 바람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얼굴 한 번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묻는 성용형님의 물음에 당신은 건강하게 잘 계신다, 걱정 말라며 도리어 밖의 정세와 투쟁하는 동지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이진강 동지 어머님께서 주문하셨던 영치금잔액 현황, 가부간에 집에 전화 좀 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어머님께서 함께 오시려 했는데 갑작스런 추위로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머님의 춘추와 병세 그리고 옛날 학생운동으로 구속되면서 어머님께서 민가협 활동을 하셨다고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또한 동지는 내년까지 교도소 측에서 약속했던 시설개선과 수용자처우에 관한 제반 약속을 불이행시에는 비타협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교도소 측에서 추가해준 30분 면회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아쉬운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가족의 면회로 인해 접견서신만 남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창윤 동지에게 미안함으로 남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성용형님이 맛있는 매생이 굴밥을 점심으로 사주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오후 4시로 예정된 비정규직 권리선언대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 결의대회를 염두 하면서 예전 영등포구치소에서 저가 질문을 던졌던 내용을 이진강 동지께서 들려주시던 답문을 상기합니다. “체 게바라는 죽음을 삶보다 강한 실천적 행위로 승화시켰으며 죽음을 미학으로 완성시켰다. 채동지의 죽음은 내용 없는 형식적 미학이 아니라 삶의 집중적 표현이며 내면에 숨어 있는 소리의 순간적 확산이었지 않았을까? 하시던 말씀... 아직도 나에게는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온다.

동지는 저에게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주문하십니다. 동지는 목적의식과 노동자 민중이 하나가 되고 과학과 감정이 통일되는 만남은 학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진강, 정창윤 동지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 민중, 청년학생, 정치범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배제와 억압, 통제를 뚫고 해방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살신성인의 정신은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전국의 수감시설에서 옥중투쟁을 전개하시는 양심수 동지들! 어느덧 12월 중순으로 치닫고 2008년도의 끝으로 갈려고 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투쟁!

서울에서 변외성 올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사면복권하고 석방하라!



모시는 글

1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25회)

- 일 시 : 2009년 1월 13일(화) 오후 6시
-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따뜻한 우리 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4년제 작, 60분 상영)
- 줄 거 리 : 평양산원에 근무하는 제대병사인 다른 의사보다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하는 등 모든 병원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기술 혁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영준과 같은 과에 근무하는 련희도 결혼을 미루고 학위논문 집필중이다. 이 두 사람의 집단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완님의 편지

통일한국을 꿈꾸며(구치소 메모중에서 발췌)

양심수후원회,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임동설한이 닥쳐오는 요즈음 동지들이 자유의 몸이 회복되어 후원회 동지들이 만나는 그날만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후원회의 성원에 감사들 드리며 성금을 수령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많은 동지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제2심 항소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춧불집회를 떠난 지 구금되어 있는 4개월 동안 저는 외로움과 앞으로 닥칠 현재의, 미래의, 불안전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양심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만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힘을 내서 단결하는 그날까지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후원회의 역량을 희망하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김동완 올림

곽동기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선생님들께

저는 실천연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곽동기입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머리 까지 손수 면회를 와주신 민가협어머님들 추운 겨울이라고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 올립니다. 별로 한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제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운동의 희망이고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정부가 막강권력을 휘두르는 듯 보이지만 저들의 타들어가는 속내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국민들은 촛불로 자신들을 단죄하고 저들의 든든한 희망이었던 아메리카가 무너져내리는 지금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일단 탄압의 몽둥이만 힘껏 부여잡아보지만 몽둥이 찰질로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는 이씨조선시대에 이미 끝났습니다.

온 국민이 인터넷으로 박사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내역까지 파악하는 지금의 현실을 지난 80년대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대 혁신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승리한다는 것이 단지 신념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조금씩 증명되는 지금, 진보운동이 단결된 활동이 기대됩니다. 머지않은 내일에 국민주권의 장엄한 선언이 이 땅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현실로 쏟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길에 민가협양심수후원회선생님들도, 또 저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도 힘차고 완강하게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탁자에 이야기 꽃이 피기를 기대합니다.

베풀어주시는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저 역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12월 4일 곽동기 올림

김성일 님의 편지

권오현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민가협어머님들 그리고 후원회 일꾼 동지들 차가운 겨울날씨에 모두들 감기는 걸리지 않았으셨나 걱정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김성일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도 한총련 활동 건으로 해서약 두 달 가까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양심수후원회에서 보내주신 소식지와 영치금을 감사히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주에 후원에에서 보내주신 소식지와 민족 21 그리고 동네의와 양말 영치금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동네의와 두터운 양말은 겨울 징역생활을 하는데 특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인사 한 번 변변히 드린 적도 없건만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 함께 가집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작된 공안탄압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살 길을 공안탄압에서 찾고 있겠지만 역대 반민주 반통일 정권의 최후가 보여주듯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현 정권의 끝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중들이 반민주 반통일 정권의 미친 독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요.

12월 들어서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후원회일꾼 동지들 모두 몸건강히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여전히 불편하신 권오현 선생님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08. 12. 8 수원구치소에서 김성일 올림

장민호 님의 편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민호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오현 회장님, 양심수후원회의 모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데 촛불항쟁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9월, 이곳 대전교도소까지 발걸음을 하시어 격려와 덕담을 하여주셨던 권오현 회장님 김혜순 모성요 변외성 김동운 동지...그리고 짧은 접견 시간에 쫓겨 미처 존함조차 여쭙지 못했던 동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도 잊지 않고 동지적 배려를 나누어주신 구속노동자후원회 여러분, 이 광열동지께도 감사의 마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12.6) 한겨레신문에서 진보진영 <덧셈정 치는쟁...>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마전 읽었던 외국철학서적에 소개된 뺄셈의 정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많은 동지들이 공감하고 계시듯 저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덧셈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중도 안되는 매국노 수구기득권세력들이 대다수 민중들 민족의 성원들을 멸시하고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대단결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안탄압정세 하에서 이 한중도 안되는 자들의 반민중 반민족적작태가 가관입니다.

자신들이 배제한 광범위한 민중의 힘, 민족의 자주역량에 놀라 분별없이 허둥대더니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는 급기야 자신들의 상전마저 물어뜯을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이념과 정견의 차이를 떠나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나 응당 갖추어야 할 그 어떤 보편적 가치를 물론이고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과 인륜마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들은 전세계적 변화의 흐름마저 거부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미구(未久)엔 자신들의 끝을 향하여 차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앞선 신문기사에서 보여지듯 진보진영 내부에 정치적 타산으로 내부사정이 복잡한 민주당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족의 자주성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최우선시 하는 동지들께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어쨌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화국북반부의 형제들 그리고 양심수동지들들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연대애의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말없이 현장을 지키며 보다 크고 근본적인 덧셈의 정치 대동단결의 정치를 추동하고 있을 수많은 동지들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건강과 건투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공안탄압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실천연대 동지들 그리고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동지들 및 모든 양심수동지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6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이정훈님의 편지

<김수영의 유고시를 읽고>

이정훈(‘일심회’ 사건구속양심수)

4.19후에 쓴 김수영의

미발표 유고시

‘김일성 만세’를 읽고

죽어서도 두려움에

꺼내지 못한 그 시를 보고

아직도 살아 피묻은

가시의 언어 감옥의 그림자

금지된 이름을

생각해 본다.

마흔 여덟 해 깊이 잠자던

시

『‘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찌는 열기와 북풍한파

다락방 먼지속,

마흔 여덟 해

제사상 마른 북어대가리 마냥

비틀어진 껍질

누런 눈알이

썩주에 잘근 씹는

마른 안주여야 하는데,

갓 물나온 생선 처럼

부릅뜬 눈 파닥거리는

생명의 파동에

분단의 시인들은 손이 어색하다.

화석으로 남아야 할 유고시가

살아서 꿈틀대는

분단국의 가난한 사상의 자유

분단국의 풍요로운 문학의 자유

* 『』부분은 김수영의 시 일부임

<첫 눈>

입동지나 물이 차갑고
바람이 날 서더니
첫눈이 내린다

함박눈 휘날리자
추억도 함께 휘돈다
지붕도 나뭇가지도 산도 하늘도
순간,
경계선은 모두 허공에서
하얗게 사라져가고

눈과 그 바람 속에
파란 그리움만 홀로
눈사람 처럼 서 있다

눈송이
하나, 둘
창상 사이로 살금 넘어와
뺨에부딪친다.

첫 눈이 내린다.
당신이 내린다.



민가협가족여러분,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나라의 자주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올 한해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행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감옥에서 쓴 시 중 2편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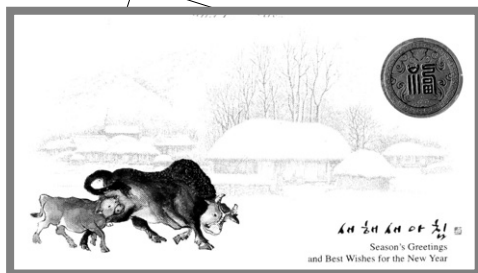
전주교도소 이정훈 올림

연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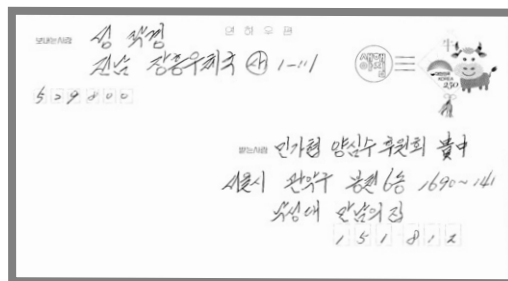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가족의 행복을 꾀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돌아오는 기복년 새해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많은 가족과 동지들이 손과 발이 묶여
권오현 회장과 최원희 회장이 건강과 행복을
기복년 새해에는 화합과 단결을 기원하며
함께 하시기...

매주에서 노동자 이희만 올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주 없는 공주봉에 올라

송지영 | 후원회원



후원회 산행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일 년 여가 되어 가도록 산행기를 쓸 일은 없었다. 아니, 솔직히 영원히 산행기를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다. 회원들을 만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맡았으니 다른 글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산행은 어릴 적 내게는 아버지와의 유일하게 소통하는 길이었다. 많이 다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기에. 그래서 그런지 늘 힘든 길이었고,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산행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찾는 길이 되었다. 6.15 한마음 산악회는 사람들이 늘 함께 해 특히 찾아 가고 싶은 산행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산행은 소요산이었다. 목적지가 소요산이란 얘기를 듣고는 누가 그 먼 곳까지 정했냐고 투덜댔다. 지하철 노선을 검색해 보니 우리 집에서는 83분 걸리는 거리였다. 검색만으로 그렸고 실제로는 소요산으로 바라 가는 전철은 이십 여 분 간격으로 있는 줄 모르고 출발했다가 중간 역에서 일요일이라 더 더딘 간격으로 오는 전철을 기다리느라 간신히 아홉시 반에 도착했다. 그 날 우린 전철 역 앞에서 길게는 한시간 반을 나처럼 전철의 제 시간을 못 맞춘 사람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먼 길과 긴 기다림에는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 단풍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산행은 왜 자꾸 북으로만 가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요산은 단풍을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먼 길에도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산행은 더 풍성해졌다. 서울 근교의 산에서는 보기 힘든 먹거리를

팔고 계신 할머니들도 계셨다. 누군가가 보리똥이라며 먹어 보라고 건넨다. 장난인 줄 알았다. 작고 예쁜 열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리수나무 열매의 이름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김규철선생님과 사모님, 류종인선생님과 사모님 등 선생님들이 다수 계셔서 가장 완만하다는 공주봉으로 길을 잡고 올랐다. 그 먼 곳으로 산행을 잡았다는 범민련의 회원은 오지 않았지만 오르기 전 그녀에 대한 원망은 오르면서 싹 가시기에 충분했다. 길이 갈리는 곳에서 두 쌍의 부부 선생님들이 남기로 하시고 올랐다. 언제나 그렇듯 다 왔다는 산행 대장님의 말에 속아 꾸역꾸역 따라 올라 어느새 526m 높이의 공주봉에 도착했다.

경기의 소금강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았다. 멀리 보이는 의상대를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공주봉의 너른 광장에서 막걸리를 풀었다. 커다란 원을 두르고 둘러 앉아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의 흥은 신현익 산행대장이 정상에서 판매하는 양은 그릇 한 잔의 막걸리로 더해졌다. 짧지만 오고 가는 잔으로 정을 더하고 아쉽지만 기다리시는 선생님들과의 점심을 위해 내려오는 길을 서둘렀다.

헤어진 곳에서 조금 더 올라와 미리 자리를 봐두신 선생님들과 또 둘러앉아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김규철선생님께서 오바마시대의 대북정책에 관한 산상강연을 출지만 열심히 듣고, 아쉽지만 산행을 접었다.

가끔 산에 오르면서 정호승 시인의 ‘산을 오르며’란 시를 생각한다.

내려가자 이제 산은 내려가기 위해서 있다/ 내려가자 다시는 끝까지 오르지 말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춘란도 피고 나면 지고 두견도 낙엽이 지면 그뿐/ 삭발할 필요는 없다 산은 내려가기 위해서 있다// 내려가자 다시는 발자국을 남기지 말자/ 내려가는 것이 진정 다시 올라오는 일일지라도/ 내려가자 눈물로 올라온 발자국을 지우자/ 눈도 내렸다가 그치고 강물도 얼었다가 풀리면 그뿐/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올라왔다// 내려가자 사람은 산을 내려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 산을 내려갈 때를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강요당하지 말고/ 해방되기 위하여 속박당하지 말고/ 북한산에도 사람들은 다 내려갔다

그렇게 우리도 아름답게 내려갈 때를 알고 내려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게 끝은 아니었다. 호젓하게 두부집 이층을 우리끼리 전세 내고 먼 산행의 담소를 나누었다. 게다가 그 자리는 이 날 처음 참석한 ‘마다’의 세 경상도 친구들이 모든 비용을 대기로 해서, 연말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비자금을 거금 10만원도 넘게 비축할 수 있었다.

김규철선생님, 이영자님, 김교영선생님, 김영식선생님, 류종인선생님, 유인호님, 박희성선생님, 이운선생님 그리고 강인옥, 김동일, 김래곤, 김익, 김재선, 김재익, 류영호, 모성용, 박윤경, 신재웅, 신현익, 이경원, 이계환, 이기택, 이용준, 이정태, 장병수, 천정기, 최복열, 탁무권, 하청래(이상 가나다순)이 함께 했다. 풍성하고 여유롭게 휴일 긴 산행에 함께 한 모두와 또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그 날을 되새겨 본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8년 12월 09일 현재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오승록	군인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7.1204	병역법	1년6월	2009/06	여주교 809	기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08.08.07	명령불복종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56	미결
이상용	노동자	건설노조(강원기계)	6월 총파업(08년)	08.09.09	폭력	1년6월	항소중	강릉교 299	미결
장용만	노동자	건설노조(경남기계)	진해시 화파업(07년)	08.08.08	업방			마산교 1200	미결
이용대	노동자	건설노조(충북)	단체협약 이행 촉구	08.02.15	집시, 폭력	10월+6월	2009/06	광주이감	기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또 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3년6월	2009/01	김천교 709	기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또 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1년+1년6월	2010/03	대구교 1154	기결
성세경	노동자	금속노조(대전충북)	ASA 사 노조인 정연대 투쟁	08.11.19	업방			대전교 1802	미결
조민재	노동자	금속노조(대전충북)	콜텍-콜트고설요구점거농성	08.11.25	집시, 업방			영등포교 3401	미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이전택 연대투쟁(07년)	08.10.12	업방			평택교 203	미결
이상언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금속노조 총파업(07년)	08.09.25	업방, 폭력	6월	항소중	수원교 318	미결
김지현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임단협(07년8월)	08.10.22	업방, 폭력			수원교 8	미결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임단협(07년 8월)	08.11.02	업방			수원교 334	미결
김진필	노동자	대우자동차판매지회	직영영업부분부터 반대농성	08.11.02	집시, 업방			인천교 5002	미결
이석행	노동자	민주노총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총파업	08.12.05	집시, 업방			영등포구치소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 반대(07년) 등	08.01.07	집시, 특공	2년	2010/01	여주교 270	기결
하부영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이랜드-홈에버 연대투쟁 등	08.11.07	집시	2년	항소중	부산교 6020	미결
배문석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이랜드-홈에버 연대투쟁	08.11.07	특공, 집시	1년6월	항소중	부산교 6035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노동조합 설립 관련	08.04.04	특공, 업방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6	미결
임상민	노동자	부산지법 노조	수시정 보열람	08.08.28	정통방법			서울교 111	미결
김학근	노동자	이랜드노조(울산)	이랜드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08.11.07	집시, 업방	1년6월	항소중	부산교 6011	미결
최용근	노동자	일간지 지국장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6.0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교 1561	미결
전경호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기흥비정규직연대투쟁	08.10.22	공방			영등포교 3433	미결
여우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 촉구 집회 관련	08.05.14	업방, 명예훼손			서울교 1227	미결
연재일	노동자	전해투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9.19	공방			서울교 3643	미결
김강봉	노동자	콜텍노조	콜텍-콜트고설요구점거농성	08.11.25	집시, 업방			영등포교 3409	미결
황창훈	노동자	학습지노조(재능교육)	노조 인정, 임금삭감 반대 농성 투쟁	08.11.09	폭력			서울교 3191	미결
윤해모	노동자	현대자동차지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08.11.08	집시			울산교 30	미결
한성기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이랜드-홈에버 연대투쟁	08.11.16	업방	6월	항소중	광주교 3350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순천)	확약서 이행 촉구	08.05.10	특공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2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07.10.22	업방, 특공	1년6월	2010/02	순천교 1280	기결
이병식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07.10.31	업방, 특공	1년	2009/01	충주교 455	기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07.11.19	업방, 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교 456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07.10.31	업방, 특공	1년6월	2009/03	충주교 461	기결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08.10.21	폭력	8월	항소중	부산교 6038	미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07.11.08	업방, 특공	1년6월	2009/05	충주교 460	기결
박창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08.11.07	업방	6월	항소중	부산교 6040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8.28	특공			서울교 89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8.28	특공			서울교 173	미결
최OO	재야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8.28	특공			서울교 50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07.02.01	국보	3년6월	2010/08	광주교 5051	기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 일	수감 지	가미결
권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9.18	특공			서울구 161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국보	7년	2013/10	대전교 4009	기결
전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9.11	특공			서울구 62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국보	4년	2010/10	대구교 45	기결
여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9.11	특공			서울구 151	미결
김석민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08.11.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289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6	국보	3년	2009/10	안동교 3010	기결
백성균	재야	미친소닷컴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47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06.10.23	국보	2년6월	2009/03	전주교 2500	기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4	국보	3년	2009/10	전주교 2510	기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6	국보	3년6월	2010/03	대전교 4003	기결
윤기진	재야	법정학원	법정학원, 한총련 불탈퇴(7기)	08.02.28	국보	3년	항소중	서울구 96	미결
문경환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성동구 59	미결
김상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수원구 302	미결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서울구 76	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서울구 15	미결
백은중	재야	인티MB 카페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0.18	집시			서울구 90	미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07.12.24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김승철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08.10.02	집시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38	미결
김종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07.10.16	집시, 폭력	1년6월	2009/04	안동교 844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4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3년+6월+6월	2009/06	안동교 15	기결
박원석	재야	참여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15	미결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물 사건	08.09.27	국보			서울구 179	미결
곽동기	재야	한국민권연구소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영등포구 3402	미결
한용진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41	미결
김동규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55	미결
오종렬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13	집시			서울구 29	미결
주재준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13	집시			서울구 33	미결
김기완	재야	한국진보연대	수시정 보열람	08.10.07	정통방법			서울구 195	미결
허 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 국민대회(11/11) 관련	07.11.21	집시, 특공	1년6월	2009/05	장흥교 88	기결
권혜진	재야	홍시단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86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재미동포)	찬양고무 사건	08.12.05	국보			수서서	미결

01 -----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8 회원역사기행”을 다녀오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기행은 ‘통일의 길목에 군사훈련장 확장이라뇨?’란 제목으로 파주 일대 미선이 효순이추모비와 미군군사훈련장과 임진각 민통선 일대를 가다.(205호 소식지 보심)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반이명박운동본부와 전국여성연대 공동주최로 200차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금요일집회’가 열리다. 이날 집회에서는故윤금이씨 사망 16주기를 추모하는 것으로 함께 진행되다. 윤한택실천연대의 여는 말에 이어 노수희 범민련서울연합대표 장수경 전국여성연대대표 등은 발언 등이 있었음.

03 -----

☞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5일 평양 방문을 앞두고 “남북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정상화의 메신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하다. 민노당의 이번 방북은 당 차원의 방북으로는 세 번째로 이달 15일부터 4박 5일간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갖는 등 남북 정당간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땅을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된 한미간 협정까지 무시하면서 미2사단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맹비난하다. 또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하고 북의 확고한 핵무기 포기 의지를 불신하여 6자회담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비판하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가 유엔 연설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UNC)를 “냉전의 산물”이라며 “지체없는 해체”를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다. 북의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는 “행정,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며 “미국이 한사코 유엔사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합리화, 영구화하며 유사시 임의의 시각에 조선반도(한반도)에 다국적 무력을 손쉽게 끌어들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04 -----

☞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회원 20여 명은 서울 종로구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범남본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민주노동당 우위영 최고위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1% 부자들들을 위한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실제 행동 돌입을 선언과 대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강만수 경제팀 경질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히다.

☞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안보회담이 6년 만에 부활한다고 하다. 미국 워싱턴에서 송봉헌 국제정책관, 데이비드 세드니(David Sedney) 미국 국방부 태태담당 부차관보, 마쓰모토 류타로(松本 隆太郎)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토의(Defense Trilateral Talks)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미.일 안보토의는 2002.5월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상호 안보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하다.

☞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라고 비난하다. 중앙통신은 이날 ‘부당한 인권소동’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일본을 지목,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다. 일본과 EU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해 11월말 표결, 총회로 넘기게 된다.

05 -----

☞ 제27차 윤이상음악회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된다. 공연에는 중앙예술단체와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여성독창 혁명가곡《꽃파는 처녀》중에서《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로 막을 올린 1일 공연무대에는 윤이상작곡들인 초기가곡《달무리》, 첼로와 하프를 위한 2중주, 클라리넷과 현악4중주를 위한 5중주 제2번, 현을 위한《용단》등의 곡목들이 올랐다. 2일 공연에는 현악4중주 봄타령을 주제로 한 소품, 윤이상작곡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슈베르트작곡 피아노5중주(송어) Op. 114(제4악장) 등의 곡목들이 올랐다. 3일 공연에는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과 해외에서 예술활동을 하고있는 남조선의 첼로연주가가 출연하였다. 관현악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차이콥스끼작곡 현악을 위한 세레나데 Op. 48(제2, 3악장), 윤이상작곡 첼로협주곡에서 출연자들은 재치있는 연주기법으로 작품들의 사상 주제적내용을 잘 형상하였다고 전하다.

● 미국의 <CNN>이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올해 47세의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고 선언하다. 버락 오바마는 건국 232년, 노예해방선언 145년 만에 미국에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 남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남북자 송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대형풍선 10개에 각 1만장씩 10만여장의 전단을 매달아 바람에 띄워 보냈다. 전단 사이에는 중국 돈 10위안과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섞여 있다. 이들은 풍선을 띄우기에 앞서 A4용지 2쪽 분량으로 미리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민주당 박지원, 송영길, 최재성 등 3명의 의원을 비난한 뒤 전단을 계속 북에 보낼 뜻을 밝혔다.

● 촛불대궐위 수배자 5명이 6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검거된 ‘촛불수배자’는 박원석(38)·한용진(44) 광주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백성균(30) 미친소닷컴 대표, 김동규(34)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35)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 조사받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하다.

06 -----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조사리 해안에서 대규모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실시되었다. 미 해병 제31원정기동부대(31 MEU)와 함께 경북 포항 일대의 해상과 내륙지역에서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독도함을 포함한 함정 27척, 기동, 공격헬기 등 항공기 3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70여 대, 해병대 1사단 및 상륙지원단 병력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다. 해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는 연합 상륙기동작전 계획수립 및 작전수행 능력 향상과 사단급 상륙작전의 수행방안 발전을 목표로 해병대 사령관의 훈련 지침인 ‘작전환경고려 발생가능한 실전상황 상정’, ‘지휘관 중심의 상황판단/결심수행체계 숙달’, ‘다양한 우발 상황대비 전술적 조치능력 숙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해상강하 고무보트(IBS) 1척이 해안

선으로 침투되면서 이날 훈련이 시작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만큼 고무보트 40여 척과 상륙돌격장갑차 50대가 투입되었다.

● 한미연합상륙작전이 펼쳐진 조사리 해안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부근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통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20여 명이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다. 노수희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이 기자회견문낭독과에서 “북한 체제 붕괴와 무력 흡수통일을 작전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상륙훈련은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정책의 추구(헌법4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리 해안 동쪽 방면에는 원형 철조망을 50미터 가량 설치하고 이 일대의 경찰 병력 200여 명을 배치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뉴욕에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이날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힐 차관보가 “오늘 뉴욕에 도착, 리 근 국장과 만찬 회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다. 특히 리 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NCAFP가 7일 주최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오바마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미 대통령 당선인 진영과 북측이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07 -----

●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평화, 통일운동단체들은 ‘반미반전 미군철수 201차 금요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서 위협천만한 군사훈련을 또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8일까지 진행되는 합동참모본부(의장 김태영) 주관 지.해.공 정기 합동야외기동훈련인 ‘2008년 호국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대화 상대인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침략적 대북 전쟁훈련을 전개하는 것은 6자 회담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다.

08 -----

● 경기도 파주시 오현리 직천분교 안 천막에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직천분교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제 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이 함께 한 가운데 100차 ‘무건리 촛

불문화제'가 열린다. 주병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주민대책위'위원장의 결의 발언이 있었음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윤한택 경기북부진보연대 상임대표,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의 감정평가단을 잘 막아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다. 풍물굿패 '우리마당'과 마당극단 '결판'의 지지공연에 이어 '노부부'가 벌인 만담에서부터 '평화여고' 2인조 그룹 '쥬더걸스'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다.

● 전태일 열사의 정신 계승을 위한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다음날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각노동단체 성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야제에는 각 투쟁사업장 후원주점이 열리고 그곳에서 먹거리를 나누는 노동자로 붐비다. 사전행사로 현장노조 간부나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전국 문예패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음. 대회 현장에는 많은 노동자들과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 촛불을 들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양심수후원회는 구속노동자후원회와 연대하여 구노회의 자원활동가들과 열심히 후원주점을 도우다. 밤 1시 까지 진행된 주점에는 송지영 모성용 박강혁 임미영 등이 함께 하다.

● 종로경찰서로 박원석 ·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 상황실장, 백성규 미친소닷컴 대표,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을 접견하다. 대책위양심수들은 바깥의 연대와 성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안에서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지다. 병원에서 외출하여 양심수들은 접견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은 다섯 분의 건강을 염려하고 또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다. 임미영 권오현 함께 하다.

09 -----

● 민주노총은 조합원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노동자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반(反)노동자.민주주의 정책'에 대하여 하반기 '중단없는 투쟁'을 선언하다. 민주노총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기일(3일)과 민주노총 창립일(11일)을 기념해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다. 조계사를 빠져 나와 참행 중인 이석행 위원장은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하반기 투쟁 결의를 전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현 내각이 총사퇴할 것과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폐기 등 20가지 요구안을 발표하다. 구체적으로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민영화 등 '금융선진화 정책'

폐기와 종부세, 법인세 완화 등 감세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국제중 설립 철회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실시 △공기업 민영화 중단 등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서 중점법안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시위피해자집단소송제, 사이버모욕제 제정 중단을 촉구하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민노당의원들과 각계 대표들을 비롯해 권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스웨덴 등 각국의 노동계 인사들도 자리하다.

10 -----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FTA 국회비준저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 시군청 앞에서 동시다발 나락썰기'를 진행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민들은 전국 동시다발 나락을 적제투쟁을 벌이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다. 또 농민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 '한미FTA 국회비준'을 거부할 것을 천명할 것과 ▲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한 자급률 목표설정 특별법' 제정에 동참할 것, ▲ '농어업용자재 가격안정 및 생산비 안정화기금 특별법'에 제정, ▲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 ▲ '대북 쌀 지원특별법' 제정, ▲ 협동조합개혁 등을 촉구하다.

11 -----

●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양심수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110차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조속한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공개한 오바마 당선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 건국 232년만의 첫 흑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전쟁과 분단의 질곡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귀하의 공약대로 하루 빨리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기나긴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상생의 동북아시아를 이뤄나가는 데 적극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하다.

● 서울 수유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정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시비(詩碑)건립추진위원회(건추위)는 '늦봄의 부활, 민족의 부활, 민중의 부활 늦봄 문익환 목사 시비제막식'을 열다.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가 제작한 시비는 사단법인 통일맞이 경의선 남쪽 지역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 늦봄 시비를 세우는 사업을 위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6.15남

측위, 한신대학교 등과 협의해 공동추진위 구성을 합의하고 4월 17일 '늦봄 문익환 목사 시비건립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초 시비건립을 희망했던 도라산 역의 경우, 통일부에 장소사용 승인 요청을 하여 통일부로부터 허가공문을 받았지만 그 해 5월 25일,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 입장내리다. 이인영 전 의원이 사회로 진행된 시비제막식에는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축사 박순경 한국진보연대 고문 등의 축사가 있었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소선 여사,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참석하다.

12 -----

●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한도숙 전농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등은 발언을 통해 미국이 재협상을 하는지 기다려보고,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 독소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며 통상절차법을 제정한 이후 그 뒤에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다.

● **북**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이날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북남장령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은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괴뢰당국이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12일 남조선괴뢰군부에 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인천** 구월동에 계신 통일원로 박정평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전립선암을 앓고 계신 선생님은 병에 굴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병을 이겨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선생님의 살아오신 내력과 통일원로서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통일의 그날 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장재언)는 성명을 발표해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가 전하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조선보수당국에 의해 조성된 엄중한 사태로 하여 더는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우리 측 대표들을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북남직통전화통로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며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적십자인도주의사업마저 완전히 차단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패당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성명은 "‘북인권결의안’ 놀음으로 말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유엔을 무대로 벌리는 터무니없는 반공화국 모략극으로서 여기에 괴뢰당국이 주모자로 가담하여 ‘공동제안국’으로 나선 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다"며 "더우기 역적패당은 이미 유엔이 일치하게 지지환영하였고 이번 ‘결의안’이라는 데도 들어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문구마저 삭제하게 함으로써 ‘선언존중’이요 뭐요 하는 가면까지 완전히 벗어던지고 반공화국 대결적 정체를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했다.

●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10월초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의 방북시 북미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밝혀 '시료채취'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는 것을 밝히다. 담화는 "그들은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평양합의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부 여론들은 마치 우리가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6자단장(수석대표)회담의 개최가 늦어지고 5자의 경제보상속도도 당연히 처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힐 차관보 방북시 합의 내용에 대해 "검증대상은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하게 될 영변핵시설로,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되며 검증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고 밝혔다. 담화는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우리는 '행동대행동' 원칙에 따라 폐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보상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무력화속도는 그만큼 더 늦추어지게 될 것이며 6자회담의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13 -----

●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와 주제준 사무처장이 미국 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에서 전농 관계자와 간담회를 끝내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혀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4 -----

● 종로경찰서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제 연행된 오종렬 공동상임대표, 주제준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영민가협회장의 여는말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홍희덕의원이 1%의지배계급의 횡포와 표적수사 규탄하는 발언에 이어 오종렬대표의 부인 김평임씨의 발언이 있었음. 진빈련김홍업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종로경찰서를 향해 안에 있는 오종렬 주제준님이 들리게 큰 소리로 힘내세요라고 외치다.

15 -----

● 지난 달 27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팔과 갈비뼈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아오시던 권오현양심수후원 회장님이 50여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오랜 치료로 수척해지시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며 입원 중에도 양심수접견이나 중요한 장소에 참석해오신 회장님은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려면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장님패유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그동안 병원을 찾아주시거나 선생님을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7 -----

● 이북의 여자청소년대표팀이 미국을 꺾고 제1차 세계청소년 여자축구(FIFA U-17)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팀이 16일 결승경기에서 세계최강팀인 미국팀을 타승하고 제1차 세계청소년(17살 아래)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제1위를 쟁취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조선팀은 방어를 강화하면서 빠른 중점연락과 대담한 중장거리차넣기, 재치있는 문전결속 등으로 미국팀의 기를 눌러놓았다”고 알렸다. 신문은 김은향 선수가 첫 골을, 장현순 선수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켜 “미국팀을 2:1로 타승하고 세계청소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첫 우승팀의 영예를 지니었다”고 알렸다.

●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사노련 탄압분쇄와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폐지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으로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촉

구기자회전’을 열다. 김광수 해방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오세철교수의 여는 말 권오현양심수후원회장, 서경순민가협전상임의장 노동자의 힘 고인택 등 규탄발언 사회당대표의 기자회견 낭독 등이 있었음

● 통일부가 개성에서 열리는 100여 개의 민족단체들로 구성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공동으로 ‘을사늑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남북공동호소문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방북을 불허하다. 단통협은 통일부와 사전협의를 다 거쳤으나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 저해 우려와 관련하여 불허한다고 통보해오다. 단통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고사하고 오직 민간단체 스스로의 시간과 비용, 의지와 뜻만으로 힘겨운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민간단체의 순수한 뜻을 정부당국이 앞장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규탄하다.

18 -----

●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행된 항소심 6차 재판에서 재판부(형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이 작가의 최후진술이 있었음.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제5조의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 혐의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변론하며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폭로하다. 이시우 사진작가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대립물을 제치고 단연 적대 1호로 빨갱이의 형상을 압축하며, 빨갱이와, 숨어있는 빨갱이로서의 간첩을 우리 가까이 있는 적으로 상상하도록 만드는데 집착한다며 그 부당성을 강변하다.

●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등 범야권과 ‘인론사유화하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5대 법안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 보위를 위한 국정원의 권력 확대이자 옛 중앙정보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대법안은 사실상 모든 국민을 묶어매 수 있는 인권 탄압법이자, 정치사찰과 보복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이행에서 정당들의 역할에 관한 북남공동토론회가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지는 의의와 그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데 대한 문제, 선언들을 고수이행해 나가는 데서 정당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들이 있었다”며 “오늘 북과 남의 정당들 앞에 나서는 과업은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역사적인 선언들을 고수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투쟁을 강화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북과 남의 모든 정당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토론회에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성원들과 강기갑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대표의 부인이신 목사님이 오랜 투병 끝에 안타깝게 17일 별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동대문감리교회로 있으시면서 1999~01년까지 낙성대 만남의 집에 매달 신자들과 찾아주셨고 큰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김호현 모성옹권오현 문상 다녀왔습니다.

19 -----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진보연대 평통사 참여연대 공동으로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5차 협상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125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통사 김종일사무처장 사회로 유영재평통사정책실장의 지지발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민영 참여연대사무총장 등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 전국반민연대 평통사 한창 한총련 등 8개 단체공동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촉구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경원범남본 전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권오창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종일평통사 사무국장의 선언이행촉구발언이 있었고 한찬욱 사월혁명회사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농성은 11.28일까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진행된다.

- **용산 철도웨딩홀 한국진보연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각 사회단체와 대중조직 간부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다. 임미영 다녀오다.

- **서울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황선 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새 시집 '6.15시대 서정시와 풍경화 - 끝을 알지' 출판기념회와 시낭송회가 열리다.** 6.15출판사 김은희 대표의 사회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는 축사가 있었고 황선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시낭송회에는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피흘리는 통일'을 낭송한 것을 비롯해, 박현선 시인이 '면회 가는 길', 이창기 시인이 '결정적 시각', 황선 시인이 '육아일기', 정설교 농부 시인이 '한국 농부와 미국', 진관 스님이 '미국산 광우병 소는 가라' 등 자작시를 낭송하다. 임미영 다녀오다.

20 -----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73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삼임의장이 여는 말, 권오현공동의장의 국정원 권한확대노린 관련법 제,개정규탄발언 황순원 진보연대민주인권장의 공안탄압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조계사 대웅전대법당에서 불교인권위원회주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 주관으로 '제14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열리다.**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오신 분 소개, 진관 불교인권위공동대표의 인사말, 지원스님(공동대표)의 제14 불교인권상 선정이유 등이 있었고 평불협이사장 법타스님,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축사가 있었고 수상자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의 수상소감과 진민주학생의 바이올린 축하연주가 있었음

21 -----

-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39명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하다.** 시국회의 발기인으로는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상근 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박순경 한국진보연대상임고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회회회장 등이다. 참가자들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하다.

- **세종로 통일부 정문 앞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 대표자 5명 중 '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과 조선대학교 김지는 학생 등 2명을 방북 불허한 통일부를 규탄하는기자회견을 열다.** '6.15남

측위 청학본부'는 평양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통일부의 반 통일적 대북대결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14일 촛불집회와 관련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이날 보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진보연대 소속단체 성원들이 구치소 앞에서 한상렬목사의 출소를 환영하다.

●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후원회소식 205호 최종교정을 해서 넘기다. 임미영

22 -----

● 이북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진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후원회소식 205호 발송작업이 만남의 집에서 있었음 문상봉 박희성 김영식선생님과 조순덕어머니 모성용 소수영 임미영 함께 하다.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등 5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11.22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다. 정현재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동대회사와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찬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발언이 있었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영상 메시지가 있었고 전국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 이건영, 서은주 조합원이 공동 낭독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다. 무대에서는 극단 결판, 전교조 문예실천단, 소리타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끝나고 대동놀이가

진행되다.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목표'라는 발언과 관련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도 22일자 "무엇을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2일 북한 군부의 통지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반공화국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도전적인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23 -----

● 인천 서구 백석천주교 묘원 이재문선생 묘소에서 남민전동지들과 (사)4.9인혁재단, 경북대여정남공원건립추진위 공동으로 60여명이 함께 하여 '고 중덕 이재문 선생 제27주기 추모제'가 열리다. 추모의례에 이어 권오현(남민전동지)님의 약력소개 안재구선생(남민전동지) 강창덕(인혁당재건위사건관련) 박정기(유가협전지장)님의 추도의 말씀, 홍제화(남민전동지)의 추모시 전사1낭송, 류근삼(4.9재단)님이 자작한시 낭송 등이 있었고 결의의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고 분향과 재배시간을 갖다. 이어 고인의 따님 이경실님의 유족 인사말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함께 하신 분들 소개시간과 대구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밀린 이야기들을 하다.

24 -----

● 이북은 "12월 1일부터 실무협의를 비롯한 협력사업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귀척인원들의 육로통과를 불허한다"며 "다만 남측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고려 일부 물자들과 수송인원들의 육로통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12월 1일 전으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아전 김윤규 선생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도 역시 "12월 1일부터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우리측에 들어오는 아전 측 실무자들과 건설인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육로통과를 불허한다"며 "여기에는 개성에서의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관계자들의 육로통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한 "다만 건설자재들을 비롯한 물자들의 반출입과 일부 수송인원들의 육로통과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건당 엄선하여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 세종로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평통사' 주최로 '매국적인 방위비분담합의-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김종일 사무처장 사회로 유영재 정책실장의 취지 및 규탄발언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회견문에서는 0미2사단 이전비용전제 방위비분담증액규탄 0협정기간 5년으로 한 안정적분담금 강요규탄 0방위비분담금 삭감과 불법전용증단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 등이다.

● 이북의 외무성은 최근 채택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에 대해 "우리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이번 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인권결의가 "우리 공화국(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하여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인권에 대해 논한다면 옹당 미국의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민간인 학살, 일본의 과거 죄행과 재일본 조선인 탄압, 서방나라들에서 만연하는 외국인 배척과 소수민족 차별 등이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위선이고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25

●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전국여성연대는 28일 남북여성 회의를 위해 평양방문을 앞두고 남북경색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6.15,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김지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음. 또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대북적대정책을 날리고 6.15, 10.4선언을 남긴다는 취지로 흰 풍선에 '대북정책 폐기'라고 쓰고 하늘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다.

●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85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국방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의 상황보고 주병준 무건리 주민대책위원장 유영재 평통사의 발언을 통하여 "방위비 분담금 8차 협정에 대한 한.미간 최종사인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 편성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통과시켰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역할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다. 평통사는 이날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반평화적, 반민중 국방예산 예산심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예산안 증액에 앞장선 국방위원들의 모습을 날카로 폭로하고

차기 선거에서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하다. 권오현 함께 하다.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등 3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11월 25일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한미FTA 반대! 농축수산업 생존권쟁취!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전국대회'를 열다.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와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4명이 공동 낭독한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한미FRA 체결과 농정을 규탄하다. 행사 말미에 '근조 한국농업'이라고 쓰인 상여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해 성난 농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상임대표,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노동당의원 등 자리를 함께하다. 대회가 끝나고 2만 여 농민들은 풍물패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을 향해 출발한 대열은 한나라당사 앞 도로를 지나 마포대교 남단 지점, 여의도 호텔, 삼희빌딩을 거쳐 여의도공원으로 되돌아오다.

26

●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민주노동당은 6.15, 10.4선언 이행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행동' 참가 기자회견을 열다. 박승흡대변인 사회로 강기갑대표이 여는 말, 김태완서울시장 자주평화통일위원장과 농성단대표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 등이 이행촉구 발언을 하다. 끝으로 이영순최고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8개 단체들이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시국농성'에 대해 범민련 해외지역본부들과 북측본부가 범민련 남측본부에 일제히 연대사를 보내와 지지의사를 밝혔다.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의장 임태광)는 21일 범민련 남측본부에 보내온 연대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파탄의 길로 몰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반북, 반통일적인 대북대결정책을 규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노상시국농성을 과감히 벌리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의 인사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며 "아울러 시국농성단에 동참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전국빈민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따뜻한 동포

애적 인사를 보낸다”고 전하다.

☞ 전국 양심수 54명에게 민족21 소식지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 민통선안에서 농사를 짓는 이재훈님이 회원 유영호님과 함께 직접 수확한 쌀50킬로그램과 6.15사과밭에서 보낸 사과 5박스를 가지고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마당에서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7 -----

☞ 영등포 대영빌딩 민노총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60주년, 야만의시대를 끝내자’라는 국보법 60주년 토론회가 열린다. 박래군 국보법폐지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설창일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사노련 공대위 소속 최미진 다 함께 활동가 등이 토론에 나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전제하면서 향후 국보법 폐지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다.

☞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쫓돌탄압. 인권유린 어청수경찰청장’ ‘위대한 GEO대상’ 수상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주의 말살. 인권탄압당사자에게 ‘위대한 GEO대상’을 수상하려는 한국일보사를 규탄하고 어청수청장은 국민에게 사죄와 수상사양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전원석방을위한 민가협 734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국가보안법제정60년을 맞는 폐지촉구발언, 참여연대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집행부 일꾼 석방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 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경시청 공안부 외사과를 비롯한 경찰수사관들이 27일 7시 5분경 ‘세리사범 위반’ 용의를 구실로 도쿄도상공회 등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고 속보 1보로 보도했다. 재일동포 상공연합회 오재세 이사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 경찰당국을 규탄했다. 담화에서는 “10월 29일의 신주쿠상공회에 대한 강제수색에 이어 경찰당국이 천만부당한 구실을 붙이고 상공련과 도쿄도상공회를 토족으로 짓밟은 것은 공정한 활동을 벌리고 있는 조선상공회를 말살하려는 권력에 의한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하고 민족적

분노를 가지고 이를 단호히 규탄하였다”고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덧붙였다.

☞ 이북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남측 상주인원 절반을 추가적으로 철수해달라고 26일 통보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위임에 따라 군사분계선 육로차단과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기업들의 상주인원 및 차량들도 절반 정도 철수하게 된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발생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난 8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체류 인원을 200명 미만으로 감축된 이후 추가적인 조치다. 29일을 기점으로 개성관광과 남북통행열차도 전면 중단된다. 다”고 전했다.

☞ 북측이 ‘12.1 조치’에 따른 통행 회수와 인원, 차량 제한 내용을 남측에 통보했다. 출입 회수는 서해지구는 매일 3차(총 6회)로, 동해지구는 매주 각 1차(총 2회)로 제한됐다. 매회 출입인원은 250명, 차량은 150대 이하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동해지구 출입은 매주 화요일 총 2회만 가능하며, 출경시간은 10시 입경시간은 15시이다. 총 6회로 제한된 서해지구(개성)는 출경시간이 오전 9시, 10시, 11시이며 입경시간은 15시, 16시, 17시로 제한된다. 또 일요일과 북측의 국가명절은 출입경이 제한된다.

28 -----

☞ 서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6.15, 10.4선언 이행 촉구 농성장에서 한국진보연대주최로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남북관계 정상화 및 6.15, 10.4선언 이행 대회’를 개최하다 한총몽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 대회사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이해촉구발언 황선 실천연대 일꾼의 시낭송. 한총련학생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 한양대 앞 한양호프에서 ‘실천연대 구속양심수 석방촉구 후원주점’이 열린다. 범남본 진보연대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 등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을 요구해온 단체성원들이 함께 하여 실천연대 집행간부들의 무죄석방의지를 다지다. 김승교 공동대표의 인사말 강진구 최한욱 광동기씨 등 부인 가족인사말 등이 있었음.

29 -----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KAL기 가족회와 KAL858기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주최 올바른 과거청산

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후원으로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1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사회로 경과보고 등에 이어 시민대책위 위원장인 김병상신부님의 인사말, 권오현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추도 말, 차옥정 가족회대표의 인사말, 헌화 등 순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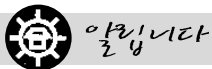
● 인사동 통일광장 사무실을 방문 통일광장대표 임방규선생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중심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선생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오랜 기억을 되살려 생생하게 이야기 해주신 임방규선생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오현 임미영함께 했습니다.

● 송파구 방이동 한미타워 2층 파크홀에서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주최로 '만경대어린이 종합병원 건립비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관련보건의료단체와 관심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되다. 서흥관 지원본부 상임이사 사회로 임종철이사장의 인사말, 윤석용 전혜숙 권오현 심재식(전이사장) 정정섭 북민협회장 노광울 한국국제의료재단 사무총장 등 축하인사말이 있었고 김유호 지원본부총무이사의 만경대어린이 종합병원 사업설명회 등이 있었음. 이어 주요참가자 소개와 소감- 팝가수 전경옥, 서도소리 전미경 등 축하공연이 있었음

30 -----
●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범민련성원과 사회단체 대표 등 400

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열여덟 돌 기념대회가 열리다. 범민련서울시연합 김 사무국장사회로 내빈 및 참가단체 소개에 이어 이규재 범난본의장의 대회사 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전국여성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평통사 실천연대 대표 등 영상축사 임방규 통일광장대표 김영주 6.15남측위공동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대표의 축사가 있었음. 이어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축사를 흥변 광주전남연합의장과 전빈련 한총련대표가 대독하다. 단상에는 범민련 강화! 이명박 심판! 국가보안법폐지! 6.15 10.4선언이행 등 큰 글씨가 나부끼다. 이어 놀이패 '걸판' '노래극단' 희망새 '영산마루' 등 합동공연이 진행되다. 멀리 제주도에서 고성화선생님을 비롯 부산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함께 한 성원들은 "우리민족끼리"라고 쓴 표현물을 들고 6.15 10.4선언이행과 자주통일을 연호하다. 마지막으로 범민련.남.북.해외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범민련 찬가'를 합창하며 마치다.

● 종로보신각 앞 광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60년, 그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대회'를 열다. 400여명의 성원이 함께 한 가운데 박래군 국보연대 사무총장 사회로 권오현 국보연대공동대표의 여는 말, 문정현신부 심재환 민변통일위원장 고은택 엠네스티한국지부장 최미진 다함께 활동가 사노련공대위 박준선씨 언론소비자주권연대대표 등 결의 발언과 실천연대 최한옥 집행위원장부인 하유진씨의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등이 있었음.



■ 후원회 부회장 김호현 님이 낙성대 '민남의 집'에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 80kg을 보냈습니다.겨울 양식 그득하게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 소득공제용 영수증

이번 해에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2009년 1월에 13개월 분을 발급하기로 개정되어 1월부터 소득공제용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우편물 받으실 주소 전화번호를 사무국(전화 874-4063, 010-4563-0559)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환 비전향장기수 류운형 선생 별세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과 함께 신념의 북녘고향으로 가셨던 류운형 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2008년 11월 22일 83세의 일기로 서거하셨다고 이북의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일뉴스가 4일 인용보도하였습니다.

류운형선생님은 1924년 12월 26일 강원도 김화군 근동면 광삼리에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와 수탈로 농촌을 피폐되어 아버지께서는 함경남도 이월철산의 철광노동을 하셨습니다. 이월에 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춘천 사범학교(현, 춘천교대)에 입학 가정교사와 관비보조 등으로 학비를 조달, 1944년 제1회 졸업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소학교교사로 일하시다 8.15해방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가족을 1946년 고향 김화로 돌아오셨고 선생님은 철원 양지인민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공청사업을 하였고 강원도당 선전부 교양과장을 역임 하시기도 했습니다. 1950년 8월 전남지역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광주에 오셨고 교육교양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후 후퇴하게 되었으나 '젊은 놈이 세월 좋을 때 있다가 세월 나쁘면 올라가면 안될 것 같아서' 입산하여 유격활동을 하며 신문(전남도당노동신문)을 만들고 교양사업을 하셨습니다. 백운산 지리산 백악산 회문산 등을 넘나들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상황을 겪으셨으며 1954년 북녘으로 돌아가서 경기도 인천을 지나던 중 8.25일 영등포역 근처에서 체포되어 광주로 압송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적용으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고 '지옥같은 감옥생활'을 하셨습니다. 4.19혁명 뒤 20년으로 감형 1974년 만기출소하셨습니다. 출소한 뒤 부화장 야채상 건설공사 일 등 1년 10개월동안 노동을 하며 생활하시다, 1975년 사회안전법 제정과 함께 다시 체포 대전을 거쳐 청주감호소에 갇혀 있다가 1989년 사회안전법폐지로 1989년 10월 12일 풀려나셨습니다. 그 뒤 선생님 한양방일 치과 기공소 등에서 일하시고 한문학자 이구영선생님의 이문학회에 함께 하시어 '연안 이씨 월사 이정귀(선조때 문장가)문집'을 번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또다시 뇌일혈로 쓰러져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다가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오시어 비전향장기수 동지들과 함께 지내시다 꿈에 그리던 신념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10월 재정보고가 편집과정에 오류 있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입금내역	입금 총액 4,659,117원
지 로	1,100,000
씨엠에스	1,640,000
국민은행	690,000
농 협	615,000
제일은행	190,000
하나은행	40,000
현금입금	330,000
유가증권	10,000
합 계	4,615,000
전월이월	44,117
총 액	4,659,117

지출내역	지출 총액 4,591,630 원
가. 양심수관련 영치금민족21.말, 소식 제발송,면회사업	1,067,210
나. 출소장기수지원 전남의집운영비출소장기수지원	655,130
다. 소식지 관련 발행 발송 및 발송 작업	941,830
라. 사무국활동비	900,000
마. 연대사업 전민특위 진보연대투쟁사업장지자방문 등	300,000
바. 교통·통신비	191,330
사. 회원사업 및 운영비 회원 경조사비 시사강좌운영 홈페이지운영	536,130

차기이월액 4,615,000 (당월입금)+44,117(전월이월금)
-4,591,630(당월지출)=67,487